

한국노어노문학회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19년 08월 제81호



발행처 : 한국노어노문학회

발행인 : 문성원

편집인 : 한국노어노문학회 총무부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 수봉관 1313호

전 화 : 031-467-0815

계좌번호 : 하나은행 391-910080-51105 / 예금주: 최정현(한국노어노문학회)

Homepage : <http://www.karl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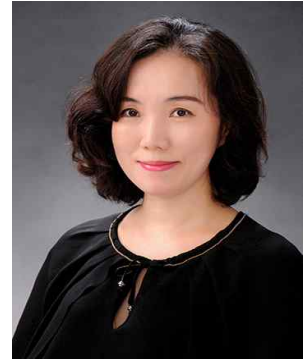
대표 이메일 : karll21@hanmail.net

차례

권두언	3
회원논단	5
회원동정	7
신간안내	7
학회지 발간 안내	9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10
회비납부 현황	16

권두언

2019년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유라시아 지역연구 인문학자들의 책무와 과제



박영은(한양대학교)

2019년은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게 된 1919년 3·1 운동은 신분·직업·지역·신앙·성별·빈부 등을 초월한 전민족의 일치된 독립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때문에 2019년 국내에서는 3·1운동을 기념해 다큐멘터리·드라마·영화 등 수많은 콘텐츠가 제작되며 이 거국적인 민족독립운동을 기리고 있다. 하지만 3·1운동에 대한 한반도에서 뜨거운 열기와 기억에 대한 활발한 조명에 비해, 당시 유라시아 대륙에 거주했던 고려인들이 3·1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재소환하며 문화적으로 내재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물론, ‘러시아’, 특히 ‘연해주’ 땅이 항일무장투쟁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일제 강점시기 이범운, 홍범도 등의 독립투사들과 이상설, 이위종, 이동녕, 안창호, 박은식, 신채호 등 애국지식인들이 활약했던 독립운동의 본거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투사들의 기지였던 연해주에서 고려인 문화예술인들의 대중문화운동이나 항일의식의 예술적 표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라는 공간을 ‘독립투사들의 공간’으로만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해주에서는 3·1운동 이후 이 정신을 기리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문화적 움직임’이 강하게 용솟음쳤다. 1923년 3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삼월일일>이란 신문이 발행되었는데, 제호가 말해주고 있듯이 이 신문은 한

반도에서 일어나 아시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3·1운동의 정신을 표방했다. <삼월일일>은 3호까지 나오고 4호부터는 <선봉>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어 발행되며, 고려인들이 만든 한글 신문으로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모태가 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3·1운동을 기념하는 연극인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했다. 1922년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물러간 뒤로는 3.1절이 돌아오면 해마다 블라디보스토크 사립극장이나 원동공장 문화회관에서 경축기념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면 어김없이 3·1운동에 관한 연극이 상연되었고, 이를 계기로 신한춘구락부에서는 연극이 자주 공연되어 대중문화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연해주에서 활발해진 문화예술활동은 여러 소인예술단들을 통합한 ‘고려극장’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고려극장은 1932년 원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문을 연 이후로 고려인의 생활 터전인 콜호즈와 소프호즈를 순회하며 끊임없이 공연을 이어오면서, 고려인 문화의 중심역할을 맡아왔다. 비록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해 오늘날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하고 있지만, ‘고려극장’은 고려인들을 결속시키고 전통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던 구심체가 되어 왔다.

이렇듯 유라시아 지역에 걸친 한민족 역사에서 ‘고려극장’이 지닌 문화·예술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려극장이 걸은 발자취와 운명에 거울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듯이, 고려극장의 역사는 구소련 고려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함께 모여 연극을 보

며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고, 걸어온 고난의 길을 추체험하며 동족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연극’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예술이었다.

고려극장 역사에 응축된 문예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려극장이 제정러시아와 소련,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역사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존립해 온 만큼 국내 연구자들이 고려극장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87년 고려극장의 역사 동안 동서냉전으로 인해 철저히 접근이 차단당했던 것이 60년 이상이었다. 그 후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해 가면서 일부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국문학계의 입장에서 어떤 ‘우리말’ 연극이 고려극장에서 상연되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무엇보다 국문학계에서는 한글 보존차원에서 해외에 위치한 극장에서 ‘우리말’이 한민족 정체성 유지의 촉매제였음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을 강조해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라는 지리적 공간에 자리했던 고려극장이 실질적으로 성장해 간 방식이나, 고려극장이 소련의 선진극장들과 극예술의 풍부한 경험을 전수받으면서 중앙아시아에서도 전문극장으로서 자리매김해 간 경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전통예술에 대한 보존은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자 했던 고려극장 한인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책무였지만, 소비에트체제와 독립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고려극장은 정부 정책에 반응하며 예술적으로도 자신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작품 선택을 끊임없이 고심하며 진화를 시도해 왔다. 고려극장의 또 다른 과업 중 하나는 고려인 관중들을 소련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의 문화유산과 접촉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명으로 인해 한국어 희곡 원본에 기초하여 연극을 공연하는 것이 극장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지만, 극장 지도부는 극작가들이 한글로만 극본을 쓰도록 고집하지는 않았다. 다른 언어로 쓰여진 희곡들을 번역하여 무대에 올리는 것 역시 주요한 임무였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더욱 중요했던 것은 작품이 극장의 공연 프로그램에 합당하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려극장 공연사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카프카스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의 작품에 대한 국내 소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작 스토리가 어떤 방식으로 윤색되고 각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그로 인한 당시 사회적 반향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고려극장이 소비에트 문화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문화, 그리고 고려극장 관계자들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진 한민족의 문화를 결합해 온 방식과 이를 예술로 변용해 온 양식으로 연구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문화예술에 대한 분석과 통찰이 가능한 인문학자들의 공동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산적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에는 수십년간 공연된 연극대본들이 한 번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기록보관실 지하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앙아시아 땅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민족 예술의 숨결을 연구할 수 있는 그 빛바랜 자료들의 보관 상태가 우수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둔다면 소중한 자료가 훼손되고 유실될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연구자들이 고려극장 기록보관실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또한 당시 연극에 참여했던 배우나 감독, 스태프 가운데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다.

무수한 난관이 첩첩이 쌓여있는 이 길은 여러 국가(단체)의 이익과도 맞물려 있는 가시밭길이다. 하지만 온전한 민족사와 문예사 정리를 위해 서라도 우리 인문학자들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 ‘고려극장’에 대한 통·공시적 자료와 예술 지형도 구축 및 유라시아지역 고려인들의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발굴과 재조명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전통의 상징이 될 것이며, 은닉된 전략으로 항일독립의 의지를 예술로 승화했던 그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남북한을 아우르게 될, 새롭게 다시 쓰는 한민족 근대예술사는 러시아극동과 중앙아시아지역의 문화를 습합(翫合)시키며 이를 유라시아 근대문화예술사로서까지 확장하는 가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회원논단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들

김보라(경상대학교)

‘러시아 전공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공 공부를 그만두고 공무원시험준비를 해야할까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러시아어 전공자를 뽑나요?’

‘러시아어 전공 말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취업이 잘 될까요?’

‘취업하려면 토르플을 준비해야 하나요 플렉스를 준비해야 하나요? 취업하려면 토르플은 몇 급을 따야 하나요?’

‘러시아어 말고 영어는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면담을 하면서 내가 받은 질문들이다. 전공 강의 중에 받는 질문들에는 무어라 대답할 거리라도 있는데, 면담을 하면서 듣게 되는 학생들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러시아 학과 선생이라면 위의 질문에 잘 대답해주고 유익한 정보도 줘야할 텐데.. 하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일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위의 질문을 받을 땐 아직도 머뭇거리며 대답을 잘 못하겠다.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강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갈까, 어떤걸 공부해볼까, 어떤 논문을 쓸까, 다음 학기는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만 생각했던 것 같다. 강의를 끝나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묻는 질문들은 주로 강의시간에 이해가 안된 부분이나 전공 공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간혹 몇몇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고

민을 공감해준 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도움이 못되어서 미안해’ 라는 무책임한 말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나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용케 대답을 피해왔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작년 이맘때만해도 교수는 강의 잘하고 좋은 논문을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논문을 꾸역꾸역 쓰는 것에서 벗어나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는 그때의 다짐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 말고도 내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우리 과에 들어와서 즐겁게 공부하고, 졸업하면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멋지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깨가 무거워진다. 내가 잘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이 강하게 밀려올 때가끔은 두렵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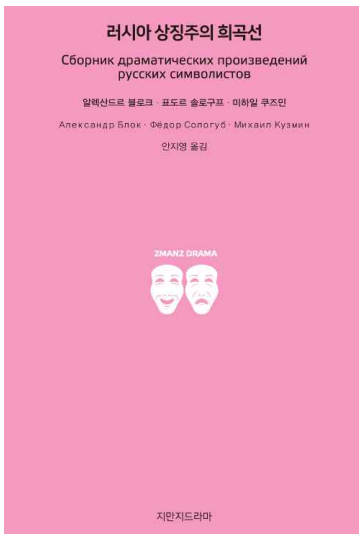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재정적인 도움은 나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기에 학교에 이런 저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제도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혼자서 책을 읽고 논문을 쓰던 나는 이제 학생과 학과, 학교사이에서 현명한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어린 시절에 자존감이 낮고 소극적인 아이였다. 홀로 유학생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문제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든다. 이런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해왔던 주문을 계속 되뇌어 본다.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그리고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하고 그곳부터 차례로 조금씩 해결해 나간다. 지금 나의 능력은 미미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야할 길을 걷다 보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질 것이라 믿는다.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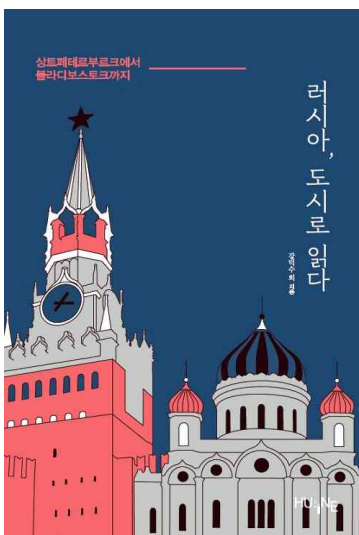
- 김상현(성균관대) 회원의 <러시아 정교회 건축과 예술>(민속원: 2018)이 2019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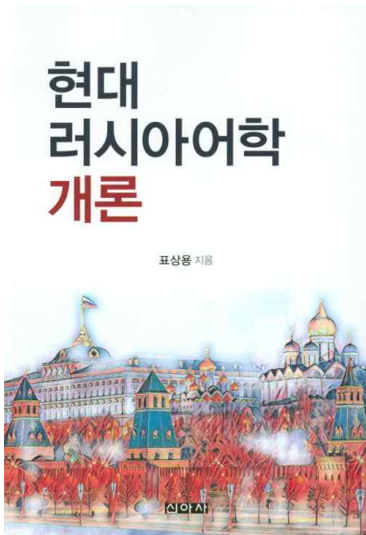
러시아 상징주의 희곡선

알렉산드르 블로크, 표도르 솔로구프, 마하일 쿠즈민(지은이),
안지영(옮긴이)
지만지드라마
2018년 8월1일, 12,800원
ISBN : 9791128837302



러시아, 도시로 읽다

강덕수(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HUINE)
2019년 6월10일, 권 30,000원
ISBN : 9791159015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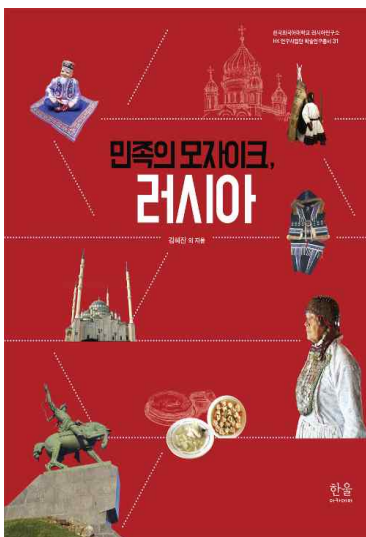
현대 러시아어학 개론

표상용(지은이)

신아사

2019년 6월5일, 값 16,000원

ISBN : 9788983963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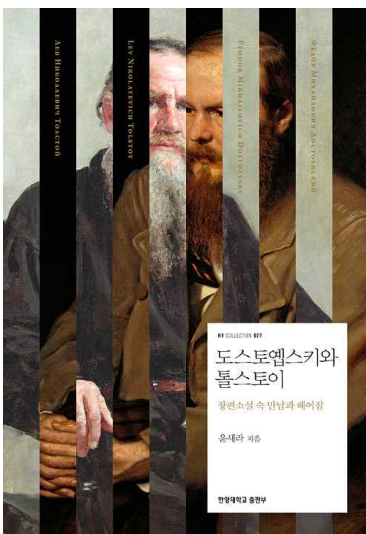
민족의 모자이크, 러시아

김혜진, 권기배, 김은희, 라승도, 박미령, 변군혁, 엄순천

한울아카데미

2019년 3월29일

ISBN : 9788946071490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 장편소설 속 만남과 헤어짐

윤새라(지은이)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9년 2월25일

ISBN : 9788972186120

학회지 발간안내

- 학회지 『노어노문학』은 연 4회 발행됩니다. 각권 제1호는 3월 30일, 제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9월 30일, 제4호는 12월 30일에 발행됩니다. 논문 투고 마감일은 각권 제1호는 2월 15일, 제2호는 5월 15일, 제3호는 8월 15일, 제4호는 11월 15일입니다.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를 통한 논문 투고는 의무사항입니다.
- 논문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JAMS에 회원 가입을 하여 논문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연회비 및 심사료를 학회 계좌(소식지 표지 참조)에 입금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평생회비는 50만원, 연회비는 5만원이며,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논문을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료는 3만원입니다.
- 논문게재료는 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면 30만원, 그렇지 않으면 20만원, 비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면 1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원입니다. 논문게재료는 심사결과 게재 확정 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비전임의 기준은 지속적 급여 수령과 퇴직금 유무인데, 모호할 경우 학회 총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 비정년트랙 교수, HK교수 및 HK연구교수는 전임으로, 연구재단 지원 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 등은 비전임으로 구분됩니다.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한국노어노문학회는 노어·노문학을 비롯한 슬라브어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학회지 『노어노문학』을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한다. 이를 위한 논문 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논문투고요령

1. 분야: 노어학, 노문학, 슬라브어학, 슬라브문학, 노어교육학, 러시아 및 슬라브권 문학
2. 종류: 상기 분야의 연구 논문 및 서평
3. 분량: 최대 A4 28매 (참고문헌 포함). 초과 시, 장당 2만원 추가 게재료
4. 사용언어: 본문은 한글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논문투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시오.

- 1)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700자 이내)과 맨 뒤에 본문과 다른 언어로 된 요약문 첨부
- 2) 주제어를 한글과 영어, 2개 언어로 작성하여 첨부
- 3)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4) 논문의 영문제목 및 투고자의 영문 이름표기

* 심사에 통과된 게재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파일의 형태로 탑재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한글과 외국어 요약문, 한글과 영문 주제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할 때 한국연구재단 제출용으로 상기 요구사항들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작성요령

- 5.0. 논문제목: 아래에 필자명과 소속을 오른쪽으로 정렬한다. 단, 공동연구일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를 저자명 중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써 공동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구별함. 이때 제1저자에는 '*'를 붙인다.

5.1. 여백주기: 초기 화면대로

5.2. 문단모양: 초기 화면대로

5.3. 글자크기: 초기 화면대로

5.4. 글자간격: 초기 화면대로

5.5. 글꼴

- 윤명조 120체 (서체가 없을 시, 한컴바탕체로 제출 가능)

- 영어 및 러시아어 Palatino Linotype

- 모든 숫자 Palatino Linotype

5.6. 그 외 주요 사항

- 러시아 작품명 (단편): “ ” 표시

- 러시아 작품명 (중-장편): 『 』 표시

- 직접 인용 문장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 강조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밑줄 혹은 짙은 색으로 강조하지 않음)

- 논문 제목: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저널 및 신문: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논문 제목: 15 진하게 (고딕체)

- 챕터 제목: 13 진하게 I. II. III. IV. ... (고딕체)

- 챕터 제목: 서론, 결론 외 ‘들어가는 말’ 혹은 ‘나가는 말’ 등 다른 표현을 하지 않음

- 챕터 소제목: 12 진하게 II-1. II-2. III-1. III-2. ...

- 본문: 11

- 각주: 10

- 본문 내 인용문단: 11 (행간은 각주에서 동일하게 130%)

- 도표, 그림, 사진: 자료 바로 하단에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되,

[도표-1] “러시아 2015년 문학의 해, 모스크바 행사 내용”

[그림-1] “Facebook 자료 캡처”

[사진-1] “톨스토이 생가 사진. 필자 직접 촬영” (2015.08.12.)

- 본문 내 인용 시, 앞뒤로 한 칸씩 띄움

5.7. 각주

[단행본] 저자 (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1)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p. 24.

2) 루이스 멍퍼드,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p. 201.

- 3) David Dordwell,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 4) В. К. Соколова,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 5) Д. Николаев,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сс. 3–4.
- 6) 김종대, *op cit.*, p. 29.
- 7) *Ibid.*, p. 87.
- 8) David Dordwell, *op cit.*, p. 39.
- 9) В. К. Соколова, *там же.* с. 98.
- 10) *Там же.* сс. 99–100.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 명(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 1)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p. 38.
- 2) Irina Reyfman,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56–58.
- 3) D. N. Shalin (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 4)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сс. 56–57.
- 5) 김학준, *op cit.*, p. 209.
- 6) *Ibid.*, p. 208.
- 7) Irina Reyfman, *op cit.*, p. 78.
- 8) *Ibid.*
- 9) D. N. Shalin (ed), *op cit.*, p. 100.
- 10)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там же.* с. 223.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년도), p. 쪽수.

- 1)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p. 25.
- 2) John Sulliva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pp. 56–58.

- 3) И. М. Денисова,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озрения, но 3 (2003), сс. 56–57.

[그 외 문헌]

- 1)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2)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3)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4)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5.8. 러시아 키릴문자의 영문자 표기: 권장하지는 않음

5.9. 참고문헌 목록 작성

각주를 지양하고 본문에(한노회, 1998: 116–117)로 표기할 경우나 각주로 한노회, 『한국노어노문학 30년 기념논문집』 (서울, 1998), pp. 116–117로 표기할 때나 공히 작성을 권장

6. 참고문헌 작성 요령: 순서는 국문, 논문, 영문 기타 외국어 순서

[단행본] 저자(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기재하지 않음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멈퍼드, 루이스.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Соколова, В. К.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Николаев, Д.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Dordwell, David.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Виноградова, Л. Н.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Reyffman, Irina.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Shalin, D. N. (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년도).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Денисова, И. М.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зоры. no 3 (2003).

Sullivan, Joh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그 외 문헌]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7. 제출형식

'아래아 한글'로만 작성하여 제출함. 편집양식을 이행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함. 국문초록은 700자 이내로

8. 제출마감일: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 논문제출시 연회비(5만원)와 심사비(3만원)를 학회계좌에 입금하고, 논문통과 후 논문게재료를 학회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나. 논문심사규정

1. 심사위원회 구성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편집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같되 연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이사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국내외 전문학자를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원칙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되, 해당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판정

3.1. '게재 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판정

3.2. '수정 게재'

- ①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게재' 판정
- ② 필요시 수정 후 재심을 통과한 후 게재

3.3. '게재 불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③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비납부 현황

▶ 평생회비 납부자

고 일, 곽태석, 강덕수, 강명수, 강홍주, 권철근, 기연수, 김경태, 김군선, 김근식, 김기열, 김문황, 김상현A, 김선진, 김선명, 김성완, 김성일, 김세일, 김신호, 김원한, 김재환, 김정아, 김정일, 김준석, 김진규, 김 혁, 김현택, 김홍중, 문석우, 문성원, 문준일, 박미령, 박선영, 박춘은, 박태성, 박혜경, 배대화, 백준현, 서상국, 석영중, 송정수, 송헌배, 신혜조, 심용보, 안병용, 안병팔, 안상훈, 안 혁, 양영란, 양창렬, 오종우, 유승만, 유학수, 윤경숙, 윤우섭, 이기주, 이길주, 이덕형, 이명자, 이상룡, 이수경, 이영범, 이용권, 이은순, 이종진, 이진아, 이진희, 이형구, 이희숙, 이희원, 장 실, 장혜진, 정막래, 정보라, 정연호, 조성연, 조혜경, 차지원, 채혜연, 최건영, 최종규, 최영미, 최윤락, 최인선, 최진석, 추석훈, 표상용, 한만춘, 한예경, 한 용, 한지형, 함영준, 홍기순, 홍대화, 홍상우, 홍정현, 황성우.

분납: 강수경(20만원), 김태옥(20만원), 박영은(20만원), 윤새라(35만원), 천호강(25만원)

▶ 2018년 연회비(5만원) 납부자(8월 이후)

가옥 류드밀라, 권기배, 권용재, 김나영, 김희연, 남혜현, 이경완, 이남경, 이성민, 전해진, 정미숙, 최아영, 최은경, 포포바 예카테리나

▶ 2019년 연회비(5만원) 납부자

길윤미, 김나영, 김알레이샤, 남대현, 어건주, 이다경, 이상철, 이성민, 이수진, 이수현, 이훈석, 한현희, 홍선희

※ 회비 납부 현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총무국(karll21@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